

공채 시즌 돌입...관건은 '인·적성 검사'

8일부터 LG·현대차·삼성·CJ 등 인·적성검사 진행

대기업 절반이 채용규모 줄여...기업별 대응 전략 필요

하반기 공채 시즌이 시작됐지만 예년에 비해 채용 인원이 대폭 줄어들면서 취업 준비생들의 마음은 무겁기만하다. 특히 취업문이 더욱 좁아진 상황에서 기업별로 기존 방식과는 다른 새로운 인·적성 검사를 시행하고 있어 응시생들의 예로는 더욱 가중되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8일 LG그룹을 시작으로 9일 현대자동차그룹, 16일은 삼성그룹, 22일 CJ그룹, 23일 SK그룹 등이 인·적성 검사를 차례로 진행한다.

하지만 국내 주요 대기업의 채용 규모는 대내외 경영환경의 어려움으로 대부분 지난해 수준을 유지하거나 줄었다. 현대자동차, CJ, SK 등 일부 기업만 채용을 늘릴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업 불황과 고강도 구조조정이 겹친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은 아예 채용하지 않기로 했다.

실제 지난해 전국경제인연합회 '2016년 500대 기업 신규채용 계획'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체의 48.6%가 올해 신규채용 규모가 지난해 보다 감소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채용규모가 지난해 보다 증가한다는 응답은 8.2%포인트 줄어든 반면, 감소한다는 응답은 12.8%포인트 증가했다. 기업

들은 미국 금리 인상 전망, 환율 급변, 중국과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갈등 등으로 올 하반기부터 경영 환경이 점점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있다.

취업문이 갈수록 좁아지자 각 기업별로 치러지는 특별한 인·적성검사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취업 준비생들은 8일 LG그룹을 시작으로 9일 현대자동차그룹, 16일은 삼성그룹, 22일 CJ그룹, 23일 SK그룹 등이 인·적성 검사를 차례로 진행한다. LG 위아핏 테스트와 적성검사를 치른다. LG 위아핏 테스트의 경우 총 342문항을 50분간 진행하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에 많은 문제를 푸는 것이 관건이다.

현대차그룹 7개 계열사는 오는 9일 인·적성 검사(HMAT)를 치른다. HMAT은 언어이해, 논리판단, 자료 해석 등 5개 분야로 나뉘어 진행된다. 2013년 하반기부터 역사 에세이 평가를 별도로 실시하고 있다. 에세이를 면접 질문에 활용하 바 있어 당락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삼성그룹은 오는 16일 삼성직무적성검사(GSAT)를 치른다. GSAT는 언어논리, 수리논리, 추리, 시각적 사고, 직무상식 등

5개 영역에 160문항을 출제한다. 올 상반기에는 삼성이 역점을 두고 있는 전기차 배터리, 자율주행차 등의 기술문제도 다수 출제할 것으로 전해졌다.

CJ그룹 인·적성검사는 적성검사인 CAT와 인성검사 CJAT로 나뉘는데, 인문학 영역에서는 대중문화, 한국사와 연계한 문제를 출제하는 점이 특징이다.

SK그룹의 인·적성 검사 SKCT(SK종합역량평가)는 150분간 인지역량과 실행역량, 심층역량, 한국사 등 영역에서 총 460문항을 출제한다.

업계 관계자는 "기업별 인·적성 검사의 특징을 파악해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제주항공 220명·진에어 30명 공채

티웨이·에어부산 연말까지 각각 50명 채용 계획

국내 대표 그룹들이 인재채용을 위한 인·적성 검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저비용항공사(LCC)들도 공개 채용에 나섰다. 세비항공 도입 및 신규 노선 취항으로 직원 이 더 필요할 것을 고려해 인재확보에 나선 것이다.

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애경그룹 계열의 제주항공과 진에어가 나란히 공개채용을 위한 원서를 받고 있다.

제주항공은 오는 9일까지 객실승무원과 일반직 등 220여명을 채용하는 하반기 공개채용을 진행하고 있다.

진에어는 현재 일반직 신입사원 30여명을 채용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오는 14일까지 온라인으로 지원 서류를 접수하며 모집 부문은 경영관리와 영업 및 운송, 운항관리 등 3개 부문이다. 진에어가 지난 9월까지 348명을 신규 채용한 것을 고려하면 연말까지 378명 이상을 새롭게 직원으로 받아들일게 된다.

티웨이항공은 오는 11월 직원 채용에 나선 계획이다. 아직 채용규모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50여명 가량을 뽑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에어부산은 지난 9월까지 190여명을 채용했고 연말까지 50여명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에어부산은 지난해에도 200명 가량을 채용했다. /김대성기자bigkim@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065.30 (+12.30) 금리 (국고채 3년) 1.32% (0.00)

↓ 코스닥 684.33 (-1.11) ↓ 환율 (USD) 1112.20원 (-1.50)

'보해 부라더#소다' 미국 진출

8월 이어 4만5천여병 추가 수출...이달부터 5개주 유통

보해양조(주)(대표이사 임지선)가 생산하는 탄산수 부라더#소다가 출시 1년 만에 미국 시장에 진출했다. 보해양조는 지난 8월중순부터 부라더#소다 밀키소다 맛 4만5000여병을 미국에 수출했으며, 교민과 현지인들의 호응에 힘입어 4만5000여병을 추가 수출한다고 6일 밝혔다.

추가 물량은 이달 말부터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해 워싱턴, 네바다, 텍사스, 일리노이, 조지아 등 5개주에서 유통될 예정이다.

이번 수출은 젊은 소비자를 중심으로 SNS 등 온라인 상에서 부라더#소다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면서 이를 확인한 미국 교민들의 적극적인 요청으로 이뤄졌다. 보해양조는 소비자들이 지인을 통해 한국에서 부라더#소다를 직접 공수하거나 고객상담실로 문의하는 사례가 늘어 수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1차 수출 후, 부라더#소다를 구매한 현지인들이 자신의 SNS 계정에 인증 사진을 올리거나 구매처 확대와 추가 입고를 원하는 등 수요가 증가해 미국 출시 두 달 만에 2차 수출을 진행하게 됐다.



제품의 맛과 알코올 함량은 국내용 부라더#소다와 동일하지만 해외 수출용임을 감안해 디자인에 변화를 줬다. 국내용 부라더#소다는 생산지인 전남 장성의 상징물인 단풍잎 로고로 제품의 정체성을 강조했다. 해외용은 문화적 보편성과 해외 소비자들의 브랜드 인지 등 글로벌 정서를 고려해 소문의 상징인 해시태그(#) 표시를 전면에 부착했다.

보해양조(주) 관계자는 "부라더#소다 출시 1년 만에 국내 탄산수 최초로 미국 시장에 진출하게 된 것은 국내 소비자의 성원 덕분"이라며, "글로벌 주류시장에서도 경쟁력 있는 제품을 통해 미국 소비자는 물론, 전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전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회복 기미 없는 광주 제조업 체감경기

'김영란법' 시행 등에 여건 악화...4분기 BSI 83

광주지역 제조업체들은 4분기 체감경기가 회복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으로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상공회의소는 최근 지역 114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분기 기업경기실사지수(BSI, 기준치=100) 전망치가 '83'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4분기 경기가 3분기보다 호전될 것으로 예상한 업체는 20.2% (3분기 16.8%), 악화될 것으로 예상한 업체는 36.8%(3분기 38.9%), 경기상황이 전분기와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은 43.0%였다.

이는 연내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 및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한 수요위축 등 대내외 불안요인들이 내수회복 여건 악화로 작용해 기업들이 느끼는 체감경기가 회복되지 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3분기 경기동향을 보여주는 실적 BSI 또한 기준치에 못미치는 74로 집계됐다. 하계휴가철 조업일수 감소로 인한 실적 부진 및 세계경제 위축으로 인한 교역량 감소 등이 경기회복의 제약조건으로 작용하면서 경기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기업들은 대내외 여건중 기업경영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예로사황으로 내수부진(24.4%)을 꼽았다. 이어 경제불확실성(16.5%), 경쟁심화(13.0%), 수출감소(11.8%), 인력난(9.1%), 정부규제(6.7%), 환율변동(6.7%), 노사분규(3.5%), 자금부족(2.4%)순이었다.

광주상의 관계자는 "글로벌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지역기업이 새로운 시장에 눈을 돌릴 수 있도록 지자체와 관계기관에서는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

지배구조 개편 명분 주고 우호 지분 확대 노림수

美 헤지펀드 엘리엇 '삼성전자 분사' 요구 속내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삼성전자에 분사와 주주 배당 등을 요구함에 따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6일 전자업계와 증권업계에 따르면 이번 엘리엇의 분사 요구로 삼성전자가 인적분할을 위한 명분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삼성전자의 인적분할, 즉 삼성전자를 삼성전자 홀딩스(지주회사)와 삼성전자 사업회사로 쪼개는 방안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지배력 강화를 위한 유력한 시나리오로 시장에서 거론돼 오던 것이다.

문제는 삼성전자의 기업가치가 크게 높아지면서 지분 확대에 전문학적 비용이 필요해졌다는 점이다. 삼성전자 지분 1%(164만327주)를 확보하려면 주당 가격을 160만원으로 쳐도 2조6245억원이라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된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두고 삼성 측과 점예하게 대립했던 엘리엇 측이 이런 분할 시나리오를 권유하고 나선 것이다.

그렇다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때 삼성 측이 적대적인 행보를 보였던 엘리

엇이 전격적으로 이런 제안을 던진 속내 는 무엇일까.

표면적으로는 삼성전자의 주식 가치의 극대화과 주주가치의 제고와 꼽는다. 당장 엘리엇이 서한에서 지적한 대로 이런 조치를 통해 삼성전자의 주가가 올라가면 삼성전자 주식 0.62%를 쥐고 있는 엘리엇도 주가 상승의 수혜를 본다. 배당 강화 역시 삼성전자의 주주인 엘리엇이 직접적인 수혜자가 된다.

하지만 다른 해석도 나온다. 지난해 삼성물산 합병 과정을 겪으면서 쌓인 감정 의 앙금 탓에 엘리엇의 제안을 선의로만 해석하긴 힘들 것이란 지적이다.

배당 강화 등 다른 외국인 주주들도 쉽게 동의할 수 있는 요구를 던져 자신의 우호 지분을 확대하려는 조처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뉴욕타임스는 엘리엇의 제안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매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면서 엘리엇의 제안에 대해 외국인 투자자가 미국식 행동주의 투자를 아시아 기업들에 심으려는 야심 찬 노력이라고 평가했다. /연합뉴스



6일 삼성전자 모델이 홈 버튼과 S 펜, 메탈 프레임까지 블랙 색상을 적용한 '갤럭시 노트7' 블랙 오톤스(Black Onyx)를 소개하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호텔급, 대형모텔

- 전남 구례군 산동면 관산리 732-1번지
지리산 온천지구 내 송원리조트 바로 옆
- 대지 573평, 건물 719평, 지하 1층 지상 4층, 객실 58개
- 1층 - 식당 / 세미나실 / 객실, 2~4층 - 객실
- 다용도 개발 가능
- 관광특구로 관광자금 유치 가능
- 시세 / 감정가 - 14억 (2016. 7월 감정)
- 1순위(은행) - 6억 3천만원 대출
- 2순위(개인) - 1억
- 매매 - 협의, 법인체 인수 가능
- 현재 리모델링 공사 준비중 (4억 예상)
- 리모델링 후 연 4억 순수익 가능
- 주인직매 H. 010-3605-5000

무인텔 부지

- 무안군(읍) 성동리 621-1번지
- 대지 530평, 백악관 모텔 옆
- 무인텔 허가 득
- 시세 / 감정가 - 12억
- 매매 - 9억 5천만원
- 주인직매 H. 010-3605-5000

토지매매, 20억

- 전남 담양군 금성면 대성리 30-47번지
외 13필지 / 담양댐 하류 바로 옆
- 토지 6000평 / 계획관리지역
- 시세 - 33억원
- 기한 - 9월 30일까지
- 관광특구로 관광자금 유치 가능
- 담양온천 1분 거리
- 전원주택 오토캠핑장 펜션 가든
온천 호텔 등등 모든업종 가능
- 개발 후 70억 이상 가치 있음
- 주인직매 H. 010-3605-5000